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김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tykim@kiep.go.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백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yjbaek@kiep.go.kr

**강대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dkang@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ASEAN FTA 발효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양 국가에서 한국기업들의 투자실태와 생산성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정보가 필요해짐.
- 2007년 6월 1일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와 2009년 9월 1일 FTA 투자협정 발효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3월 말 누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약 67억 달러로 미국, 중국, 홍콩, 영국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며,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약 48억 달러로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이어 8위를 차지함.
  - 2011년 3월 말 누계 기준 현지진출 한국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2,160개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는 1,355개로 일본과 홍콩 다음으로 6위를 차지함.
- 이에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실태와 생산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초기에는 기업들이 자원개발과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였지만, 최근에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1980년대부터 기업들의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섬유와 봉제 산업에 대한 현지투자가 이루어졌음.
  - 최근에는 한국기업들이 현지인을 경영진으로 고용하거나 현지 내수를 공략하는 등 다양한 현지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즉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전략과 기업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생산성에 미치는 성공요인을 발굴하여 기업들의 경영전략 수립과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실태 파악이 가능하며, 개별 기업들의 경영실적 자료를 통하여 생산성 분석과 성공요인 발굴이 가능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 양 국가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비즈니스 수월성, 경제자유도와 같은 투자환경 측면은 세계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베트남은 1986년 개혁정책과 대외개방정책 추진 및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 관련 법령과 기관을 정비하였으며, ODA를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동남아 저개발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2006년 투자환경개선 패키지를 통하여 본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PPP 개발방식 도입, 토지수용관련 법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였음.
-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는 양국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다만, 베트남은 재산권 등록, 대출, 채권회수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고, 인도네시아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소 나은 편임.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다소 나은 편이지만, 부정부패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세계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최근 임금인상이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11년 초반 법정최저임금이 15.7% 인상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다시 27.3~32.5% 인상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2011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15.4% 인상되었는데, 인도네시아 화폐(루피아) 가치가 절상되어 외국계 기업이 체감하는 임금상승은 이보다 높음.
  - 2011년 1월 기준, 일본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의 급여수준(기본급+수당+사회보장비+잔업수당+보너스 포함)을 살펴보면, 일반 종업원의 급여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60~70%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엔지니어나 매니저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베트남에 대한 FDI의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송·보관·통신 분야와 광업에 대한 FDI가 많은 편임.
  - 2011년 4월 기준, 베트남의 FDI 집행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650억 달러 중 대만이 약 98.6억 달러 투자로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이 79.4억 달러로 2위, 싱가포르가 65.8억 달러로 3위, 일본이 60.5억 달러로 4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332억 달러(51%)로 1위이며, 부동산이 116.7억 달러(17.9%)로 2위, 건설이 37.8억 달러(5.8%)로 3위를 차지함. 이외에도 부동산,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광업, 금융·은행·보험 등으로 FDI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최근 5년(2005~10년) 동안 FDI 투자액은 약 670억 달러인데, 2010년 한 해 기준, 싱가포르가 약 50억 달러 투자로 1위이며, 영국이 18.9억 달러로 2위, 미국이 9.3억 달러로 3위를 차지함.
    - 2010년 한 해 기준,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에 30.4억 달러(18.8%), 2차 산업에 33.6억 달러(20.7%), 3차 산업에 98.2억 달러(60.5%)의 FDI가 투자되었음.

- 특히 3차 산업 중 수송·보관·통신 분야에서 약 50.5억 달러(31.1%)가 투자되었고, 1차 산업 중 광업 분야에 22.3억 달러(13.7%)가 투자되었으며, 최근에는 제지·인쇄, 전기·가스·수도 등에 대한 FDI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양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의 경우, 1980년대 초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에서 출발하여 1992년 베트남과 수교 이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1년 3월 기준, 대베트남 투자 총액은 약 65.5억 달러이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35.7억 달러(54%)로 주를 이루고 있음.
- 같은 기간 대인도네시아 투자 총액은 약 47.6억 달러이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24.2억 달러, 광업에 13.2억 달러로 주를 이루고 있음.

## 2) 현지 경영실태 분석

-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11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설문 조사를 2006년 인도 진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2004년 중국 진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동기는 여전히 저임금이 우선이나 두 번째로는 내수시장 진출임.
- 이는 2004년 조사된 중국 진출 기업들의 투자동기와 동일하지만, 2006년 조사된 인도 진출 기업들의 투자동기인 ‘내수시장 진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다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할 때 두 번째 주요 동기는 내수시장 진출인데, 이는 이들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동기가 저임금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입지선정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조달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이슈임.

- 2004년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과의 인접성 여부가 중요하였고, 2006년 인도 진출 기업의 경우 지역시장성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었음.
- 향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입지 선정에 있어 지역의 시장성이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양 국가 모두 노무, 세무, 통관 등과 같은 현지 법률과 제도적인 부분임.

- 투자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 정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참고로 2004년 조사된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원가상승이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2006년 조사된 인도 진출 기업의 경우 임금인상과 행정체계가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표 1.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진출 기업들의 주요 항목 비교

항 목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투자동기	국가선정	저임금	저임금	내수시장	저임금
	입지선정	노동력 확보	노동력 확보	지역시장성	한국과 인접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노무, 세무, 통관	노무, 세무, 통관	행정체계 임금인상	원가상승	
정보 취득	한국정부·기관	한인사회	기진출 업체	기진출 업체	
현지화와 네트워킹	주요 의사과정 현지인력 참여	주요 의사과정 현지인력 참여	현지 스태프 활용	중국 지사 규모 확대	
경영역량 강화	제품생산, 마케팅 강화	마케팅, R&D 강화	생산관리 강화, 마케팅 강화	생산시설 확대, R&D 이전	
투자진출 지원 시기	진출 고려할 때	진출 고려할 때	-	-	

주: 인도의 경우 이순철 외(2006년)의 2006년 설문조사 결과이며, 중국의 경우 지만수 외(2004)의 2004년 설문조사 결과임.

- 정보 취득을 위해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와 기관 간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 및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즉 한국정부 및 기진출 기업간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현지정부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전에 조사된 중국과 인도 진출 기업의 경우 기진출한 업체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지화와 네트워킹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지인 고용 비중을 늘리고, 이후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이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있음.
  - 2004년 조사된 중국진출 기업의 경우 주로 지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현지화 및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음.
  - 2006년 조사된 인도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을 사무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지화를 시작하였음.
- 경영역량 강화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제품생산능력과 마케팅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케팅 역량과 R&D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04년 조사된 중국의 경우 생산시설 확대와 더불어 현지에 R&D를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6년 조사된 인도의 경우 생산관리와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투자진출 지원 시기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초기 진출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 생산성 분석

- 2009 회계연도 기준,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한국기업 수는 베트남 총 791개, 인도네시아 총 360개임.
- 2011년 3월 누계 기준, 현지법인 수가 베트남 2,160개, 인도네시아 1,355개임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 한국 기업 수의 약 30~40%에 해당하는 수치임.
-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음.
  
- 총매출액 평균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양 국가 모두에서 ① 평균적으로 매출총이익은 양(+)의 값을 가지며, ② 기업 간 규모의 편차가 큰 편이고, ③ 특히 매출원가보다는 매출액의 편차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 주로 운영비와 사무실 인건비로 구성되는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임.
-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판매관리비 평균보다 높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영업활동 이외의 다른 비용이 많이 소요됨을 의미함.
  - 즉 2009년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 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의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의 법인세 평균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25.1배 정도로 월등히 높지만, 이러한 법인세를 보고한 기업 비중은 낮은 편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로 대규모 광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 법인세 비용이 높은 반면,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중 법인세를 보고한 기업 비중이 각각 8.3%와 14.2% 수준인데, 이는 최근 경제특구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 초기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지 고용자수 평균은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인 고용자는 베트남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보다 다소 높은 편임.

표 2.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다양한 항목 비교(2009 회계연도)

항목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교 B/A
	자료 수 (개)	값 (A)	자료 수 (개)	값 (B)	
총매출액 평균	236	\$25,255,568	100	\$99,055,520	3.9
매출원가 평균	232	\$21,501,233	99	\$74,613,495	3.5
판매관리비 평균	275	\$2,471,549	124	\$6,790,766	2.7
영업외비용 평균	235	\$4,197,102	109	\$4,088,101	1.0
법인세 평균	55	\$553,439	51	\$13,900,490	25.1
자본금 평균	373	\$10,116,121	175	\$9,255,371	0.9
현지인 고용자 평균	314	769.0 명	145	767.3 명	1.0
한국인 고용자 평균	320	7.8 명	148	6.6 명	0.8
제조업 비중	791	73.2 %	360	60.6 %	0.8

- 베트남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을 가정할 경우, ①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의 비중이 낮을수록 ② 기업의 영업기간이 길수록 ③ 중부지역, 호치민 인근 남부지역, 하노이 인근 북부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VRS)을 가정할 경우, ① 기업의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중부지역, 하노이 및 북부지역, 호치민 인근 남부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의 비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을 가정할 경우, ① 기업의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VRS)의 경우, ① 영업기간이나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 비중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②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이 자카르타 지역보다 다소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3. 정책 제언

#### 1) 현지 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출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 이외에도 정보부족을 꼽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보부족 해소를 위해 영세한 소규모 현지법인의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과 법률 정보와 같은 현지의 전문적인 정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2004년 조사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사례(지만수 외 2004)를 통하여 지원기관과 기업 간 쌍방향 소통(Feed Back), 정보수요자 입장에서의 자료제공(예: 투자상담집, Q&A 등), 기업간 횡적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초기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서비스업 투자 증가에 따른 지

원조직 구성(예: 대한상의의 서비스업 분야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2010년 조사된 연구(현혜정 외 2010)에서는 수직적 투자 활성화에 따른 국제 생산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망산업 중 서비스업 해외진출이 중요하며, 특히 물류·유통·금융·통신 등 인프라 관련 서비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예: KOTRA의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의 서비스분야 정보 강화)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현지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지의 세무, 관세, 통관 등과 같이 경영활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국의 법률 및 정책정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경우 화폐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지의 통화정책과 이자율 정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2008년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고, 베트남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지 진출 기업들은 한국정부와 관련기관, 한인사회 등을 통하여 대부분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지 파트너나 정부기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기도 함.
  - 일례로,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베트남 재무부와 국세총국 및 세관총국의 주요 실무자를 초빙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한국기업들이 제시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베트남 측에서 준비한 답변을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한 후 회의가 시작됨.
  - 2011년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동행사를 연간 2회에서 연간 4회로 늘릴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한국기업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

-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현지정부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큰 과제라 할 수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정부에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함.
  - 세미나 자료에 대한 현지 정부나 기관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혹은 발송하는 형태도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

## 2)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 2008년 이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지의 물가와 이자율 및 환율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분석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2009년 경영실적 자료에 의하면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현지 통화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현지의 유·무상 자산 구입에 따른 시세차손 등 영업외비용이 일반 운영비인 판매관리비보다 1.5배 이상 소요됨.
  - 즉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및 환율 등에 대한 정보는 원자재 구입비 및 직접노무비와 같은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외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음.
- 정부 차원에서 신흥지역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적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물가, 이자율, 환율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 현지국의 경제정책과 현상을 파악한 후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해 경제 전반을 전망하는 분석적인 작업이 가

능한 전문가 육성과 현지국 경제전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3)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 또한 분야별로 다양함.
  - 현지 특정 분야의 고위직 공무원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 현지 세무 및 노무 등 법률 전문가, 노동력 확보를 위한 현지 전문인력, 노무 관리 전문인력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음.
  - 한편 기존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동종업종의 한인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로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정부는 다양한 현지 전문인력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관리하고 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지역의 경우,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4)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 베트남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전략산업(예: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가 요구됨.
  -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진출과 한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비중이 높아 한국이 대베트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하여 상품무역을 포함하여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베트남

남의 사회인프라 개발 부문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해 일본이 추진한 것과 같이 특정 산업부문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 생산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전략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임.

-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 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데, 현지 세무,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의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ASEAN의 경우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통해 2013년까지 로지스틱 분야에서 최소 7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며, 2015년에는 ASEAN 역내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7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즉 역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른 ASEAN 국가들의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진출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업 수요 조사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간산업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함.

- 인도네시아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천연자원에 대한 자국의무사용 비율을 높이고, 자국 기간산업을 더욱 활발히 육성하고자 함.

- 한·인도네시아 FTA 협상 시 이러한 현지 보호 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기업들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내수시장 잠재력이 높아 현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례로, 기업 수요에 맞추어 한국 내 할랄 인증기관을 보다 확대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5) 진출시기별 · 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속

- 생산성 분석(DEA)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영업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는 기업들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에 진출하는 금융업의 경우, 초기에 하노이보다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분포한 호치민 지역에 지점 형태로 진출하여 다양한 현지경험을 축적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지 단독 법인화를 하는 방식임.
- 아직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기진출 기업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기진출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 경험 및 노하우를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과 공유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현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외진출 자체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별 · 업종별 · 진출시기별 · 진출지역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